

어머니로서 보낸 일년간

『부인공론』 1917년 5월호

일반적으로나 학자들이 여성에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어머니로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우나 두려움, 과중한 책임감, 뭐라 할 수 없는 당혹감, 꺼림직함, 그러면서도 이상한 희망, 기대,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기쁨과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종의 경이와 불가사의함, 이러한 모순 투성이인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찢찢 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딪친 지 어언 1년 4개월이 됩니다. 그 동안 제 아이는 놀랄 만큼 컸습니다. 제가 요쓰야에서 이사하여 퇴원 후 〇씨(오쿠 무라 히로시[奥村博史])를 병구완하느라 산후 부기가 빠지기를 기다려서 이 바닷가로 옮겨온 것은 작년 겨울 건국기념일 오후였습니다. 등에 업혀서 줄곧 잠들거나 칭얼대는 수밖에 없었던 생후 2개월 된 젖먹이는 이제 부모도 알아보고 따르며 유아 특유의 말로써 불완전하나마 자신의 요구를 대개 표현할 수 있으며, 가고 싶은 곳은 자기 힘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제 안의 모성애도 점차 성장하고 변화한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자기 손으로 기를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미 태내에 있을 때부터 여러 점에서 생각하고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완쾌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애인의 병간호라는 당연한 책임도 있었고, 또 억누를 수 없는 개성의 요구로서 하고 싶은 일이나 연구도 있었으며, 집안의 생계 때문에 재능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짐도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래 조용함과 고독을 좋아하는 성벽이나 과민한 신경 때문에라도 육아에는 아무래도 부적당하다고 여겨졌고 실제로 그런 기술에 대한 자신도 경험도 없고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제 심정만을 보자면 아이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방법으로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단계에서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일 때에만 맡긴다고 해도 아이의 교육은 탄생하는 날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몸이 건강하고 젖의 양이 풍부하면서도 질이 좋아야 한다는 자격만 따져도 만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를 하던 중 저는 산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일주일도 안 되어 그렇게나 결정을 못 내리던 커다란 문제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입원하고 있던 산과 병원의 여의사는 제게 모유가 아이에게 가장 좋다는 것, 모유로 기르는 것만큼 아이에게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열심히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제 마음속에 자기 젖으로 기르자는 결심이 대자연이 어머니에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아무런 논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사의 말을 “그렇겠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안되겠지요” 하고 무조건 따르는 기분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심경의 급격한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울음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아이의 무게를 팔로 느끼고 부드러운 피부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 아이—기묘하게 발간 살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살아 있을 뿐 조금도 귀엽지 않은 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의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선악 양쪽의 의미로 에

고이즘을 손쉽게 정복하여 모든 곤란, 희생, 모순 같은 것을 예상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손수 기르자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도록 만든 새로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이 모성애라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힘일까요. 저는 아직 사랑이라 할 만한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성을 넘어서 또는 때로 이성을 배반하여 개인에게 작용하는, 자연의 심연이 주는 종족의 의사와 명령이라는 것과 대면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성애는 제 마음에 처음에는 무능하고 무력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로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것, 의지가지 없는 것에 대한 연민과 같은 사랑이었고, 또한 그것을 보호해야겠다는 감정 또는 책임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생적이고 자아를 잊고 무조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애정으로 되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그것은 적어도 아이가 자주 웃게 되고 나서부터, 어머니를 알아보고 따르는 때부터,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특수한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성애가 보호의 감정이나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 즉 동정과는 전혀 다른 성질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분석해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모유로 아이를 기를 결심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유로 기른다고 해도 어머니의 생활 이외의 다른 생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아이 때문에 숙박 당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젖과 우유를 동시에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둘 다 아이에게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의 작고 빨기 어려운 유두를 싫어하고 점점 젖병의 젖꼭지를 좋아하더니 급기야는 젖을 먹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더 인내했다라면 아이가 울면서 버티는 것을 참아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끝까지 궁리했겠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만큼 아이에 대해

서 느긋하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의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안달을 하면서 더 궁리할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도 젓먹이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잘 나오던 젓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충분한 발육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점점 야위었습니다. 특히 시골로 와서는 우유의 질이 나빴기 때문에 한층 더 눈에 띄게 영양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일입니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은 좌절을 겪었고 제가 가장 염원했던 바대로 몸의 속박은 없었지만 그 대신, 인공영양에 밤낮 구별 없이 손이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번잡함을 참아야 했는지요. 또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이 아껴야 할 쓸데없는 비용도 얼마나 많이 감당해야 했는지요. 저는 모성의 즐거움의 하나인 수유의 기쁨을 결국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직도 안타깝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요구를 표준으로 삼지 않고 의사의 말이나 책을 지나치게 취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유 타는 방법이나 먹이는 양과 시간을 모두 의사의 조치에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야위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삼아 큰마음을 먹고 일반적인 표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부지런히 관찰하여 울음소리의 종류를 식별하여 아이의 욕구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시간이 규정된 시간보다 빨라도 상관하지 않고 먹였고, 분량도 싫어할 때까지 주었으며, 물의 양도 적게 하여 된 우유를 주었습니다. 우유 밖에도 콘텐스 밀크도 섞어서 탔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눈에 띄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루소는 『에밀』에서 (구체적인 말은 잊었지만) “아이에게는 먹고 싶어하는 만큼 먹이는 것이 좋다, 아 이런 과식을 해도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은 아이의 몸에 필요한 만큼 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른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한 분량을 먹인다, 하지만 이것은 위

에 맞는 분량이 아니라 상상으로 계량한 것이다, 그 증거로 시골의 아이는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지만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한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과연 일리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이가 날이 갈수록 영양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이 방법에 대해 자신을 가졌지만, 한때는 꽤 걱정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손으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심은 했지만 매사를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저는 저항력이 극히 작아서 감염되기 쉬운 아이가 아버지와 같은 병이 걸려서 무서운 죽음의 덫에 빠지는 환영 때문에 몇 번이나 전율하며 비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가끔 기침만 해도 제 신경은 얼마나 괴롭고 걱정에 빠졌는지요. 이런 때 우리에게는 양부모나 유모의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몇 번이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들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양부모나 유모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탁한 사람들이 친절하게 아이를 맡기라고 알려줄 때 우리는 마치 그런 부탁은 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그들의 말을 냉담하게, 적의조차 품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지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동요하면서도 역시 타인—더구나 무지한 타인의 손에 아이를 건네지 못하는 동안, 가장 손이 가는 때라고 하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인공영양으로는 보기 드물다고 할 정도로 우량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아이를 제 품에서 앗아간다면 제 생활에 공허함을 느끼겠지요. 예전에는 아이가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이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의 장래나 교육 등에 대하여 생각도 못하던 희망과 기쁨, 중한 책임감으로써 진지하고 엄숙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생의 작업(lifework)은 역시 자기 아이를 자기보다 뛰어난 사

람으로 키워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음 세대를 낳아 시대에 맞게 교육하는 일이 일반 부인에게 주어진 천직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자기의 개성을 선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바라왔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모두 그것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역시 그것을 바라는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이 욕구로부터 개인으로서의 생활을 기념할 만큼 재능을 발휘하여 일을 하고 싶어한다. 더구나 어떤 의미에서 다소간 문명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라 해도 지금 자신의 만족이라는 것을 잠시 접어놓고 나서 공평하고 냉정하게 인류 전체라는 처지에서 볼 때,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종족에 대한 봉사와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저 역시 한편으로 어머니의 삶으로만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생활의 필요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제 자신의 내적 요구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발현한 모성애가 예고 이즘을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두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역할 즉 여기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아이를 기르는 일이라는 것은 주시하다시피 상상 이상으로 섬세한 주의와 끊임없는 배려가 필요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없이 불규칙한 잡무가 이어집니다(아이가 조금 성장하여 혼자 놀 수 있고 유치원이나 소학교에 다닐 정도가 되면 어머니의 역할도 달라지겠지만). 이 일이 저를 어떤 처지에 몰아넣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피로와 혼란, 수면 부족에서 비롯되는 과민한 신경의 아픔과 쉼 없이 쫓기는 듯이 안절부절 하는 기분,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고 쓸쓸한 초조감이었습니다. 저는 충실한 삶과 보람 있

는 자아의 생활을 고양하고 심화하며 넓혀 가는 자아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러한 정신적인 위축을 의미하는 히스테리 상태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특히 애인에게는 좀처럼 매몰찬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는 어떤 일인지 무자비하게 대할 때 저는 더 한층 슬프고 부끄러우며 죄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정 때문에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익숙하지 않은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과도한 피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제 자신 속의 에고이즘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서, 자세히 말하면 제 개성의 요구가 생각대로 만족되지 않아서, 고독 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공부나 일에 커다란 지장이 생겨서 불평, 불만, 초조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빈곤, 이 빈곤의 압박도 확실히 한 요인이었겠지요. 저는 어떤 순간 아이를 저주하는가 하면 다음 순간 부인의 개성과 재능과 경제적 독립생활을 저주했습니다. 스스로 억제하기 어려운 강한 욕망이 없었다면, 또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래서 하루종일 아이와 함께 노는 것으로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온화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랬다면 아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안이함을 구하는 마음 약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성의 다양한 요구조차도 보이지 않는 자연의 비밀이 어머니인 제 마음에 심어준 아이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거나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도록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 그토록 아이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 제가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 아이를 가질 만큼 강해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모성애는 역시 어떤 일이 있다 한들 억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로서 일년 남짓 보낸 제 생활은 에고이즘(개인주의)과 알트루이즘(애타주의 altruism)의 부단한 투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의 연애를 긍정한 것은 그것이 저에게 자아의 주장이며 발전이었기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아의 주장이자 발전인 연애는 인생의 다른 일면인 애타적 생활로 통하는 하나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제 앞에는 애인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 애타주의의 천지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자기 생활의 여러 모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인생의 모순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 모순도 역시 저를 더욱 넓고 크고 깊은 생활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생활의 묘미란 제 생활에서 보자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로 보이는 인생의 양 측면이 실로 참된 조화와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서 부인의 경제생활, 즉 어머니와 직업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을 간단히 부가해서 이 글을 맺고 싶습니다만, 조금 길어질 것 같고 원고 마감도 임박하였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이쇼 6년, 4월 5일)

